



특 집

위기의 한국양육 탈출구를 찾아라

<차 례>

- 한국양육 숨통 조이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 “절편녹용 시장 개방하라” - 뉴질랜드 -
-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지하라” - 본회 -
- 절편녹용 수입개방이 국내 양육에 미치는 영향
- 기자의 시각 - 뉴대사관의 무성의 무경우
- 절편녹용 수입 강경대응 분위기 확산
- 협회장, 절편녹용 수입 부당함 대내외에 알려
- 농축산 전문지 업계 분위기 적극 반영
- 협회 추진방향

97년, IMF란 생소한 단어가 국내 양육업자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자가사료 생산, 산야초 채취 등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으로 어려운 고비를 지탱해 왔던 국내 양육은 지난해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의 발생으로 다시한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사슴에 대한 임상결과가 실시되는 난리속에 다행히도 국내 사슴은 CWD로부터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와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올해, 실업자 감소와 더불어 소비도 촉진되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언론 보도를 접하며 신발끈을 조이며 의욕을 불살랐던 국내 양육인들은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 허용 요구에 또다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 터널을 지나 낭떠러지를 만나는 격이다.

절편녹용 수입 입장을 굽히지 않는 뉴질랜드의 대응에 국내 업계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절편녹용 수입만큼은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생녹용 가격의 1/10 수준에 불과한 뉴질랜드 절편 녹용의 수입은 곧 국내 양육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폭풍에 휘말린 한국양육. 절편녹용 수입 절대불가를 목표로 힘을 합쳐 노를 저어 나가야 할 때다.

(편집자·주)